록
읍·면행정 일반

역대 구호 및 방침
■ 조직도
■ 역대 군수 및 부군수
■ 역대 도의회 의원
■ 역대 군의회 의원
■ 군산하 간부 공무원
■ 주요연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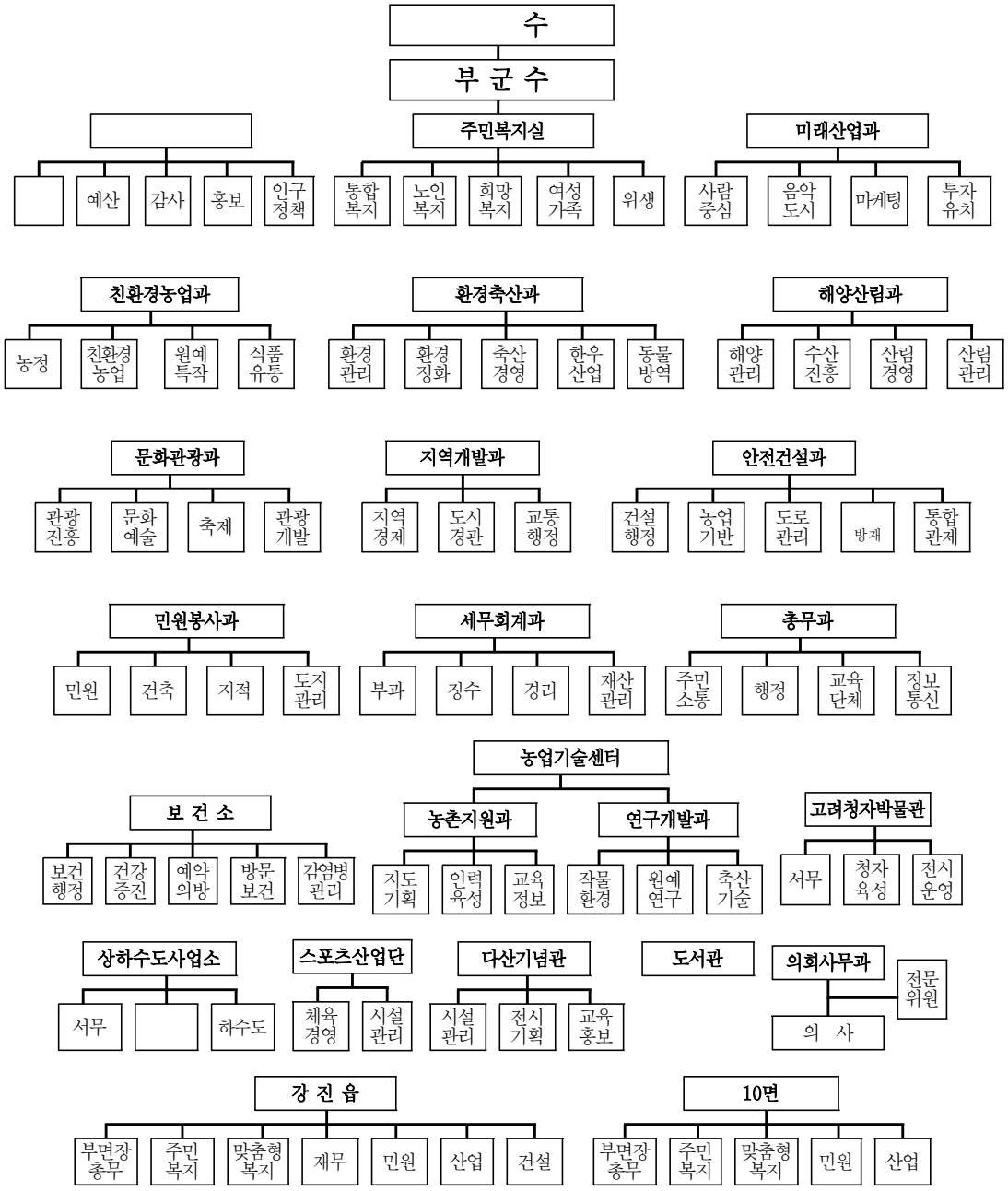
군정구호 및 방침

분	군 정 구 호	방 침	비 고
제 31 대 (문병일)	안정속에 복지 농어촌 건설	1. 군민 화합의 결실 2. 자치능력의 배양 3. 주민소득의 증대 4. 경천애인의 실천	
제 32 대 (백종철)	살기 좋은 강진 활기찬 건설	1. 깨끗한 군정 2. 군민 소득증대 3. 지역개발 촉진 4. 문예관광 진흥	
제 33 대 (박재순)	번영의 2000년대 희망찬 강진건설	1. 희망찬 군민 2. 봉사하는 행정 3. 앞서가는 개발	
제 34 대 (김영록)	큰마음 · 큰화합 · 큰발전	1. 서비스 행정의 실천 2. 지역 경쟁력의 제고 3. 내고장 가꾸기 솔선	
제 35 대 (전지현)	큰마음 · 큰화합 · 큰발전	1. 서비스 행정의 실천 2. 지역 경쟁력의 제고 3. 내고장 가꾸기 솔선	
제 36 대 (김재홍)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 강진	1. 도의바른 군민 2. 신뢰받는 군정 3. 활력있는 개발 4. 풍요로운 강진	
제 37 대 (윤영수)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새 강진	1. 봉사행정 실천 2. 군민소득 증대 3. 지역균형 개발 4. 문예관광 진흥	

분	군 정 구 호	방 침	비 고
제 38 대 (윤동환)	큰 화합 큰 발전 희망찬 새강진	1. 문화관광 진흥 2. 복지행정 구현 3. 목민정신 계승 4. 청정환경 보전 5. 군민화합 실현	
제 39 대 (황주홍)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혁 지역경제 회생	1. 깨끗한 군정 2. 과학적 군정 3. 공격적 군정 4. 따뜻한 군정	
제 40 대 (황주홍)	정직·친절·화합은 강진의 자본입니다.	1. 깨끗한 군정 2. 과학적 군정 3. 공격적 군정 4. 따뜻한 군정	
제 41 대 (황주홍)	정직·친절·화합은 강진의 자본입니다.	1. 깨끗한 군정 2. 과학적 군정 3. 공격적 군정 4. 따뜻한 군정	
제 42 대 (강진원)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1. 사람 중심 열린 군정 2. 산업 경영 소득 창출 3. 매력 있는 지역 개발 4. 맞춤형 복지 증진	
제 43 대 (강진원)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1. 함께하는 열린행정 2. 살맛나는 부자농촌 3. 따뜻한 섬김복지 4. 매력있는 문화관광 5. 미래여는 인재양성	

조직도

청	2실 10과 51담당
직 속	2소 2과 11담당
사업소	5사업소 12담당
의 회	1과 1담당
읍 면	1읍 10면 5담당



군수 및 부군수

1.

순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김 용 기	1948. 03. 25.	1950. 05. 14.	
2	김 치 준	1950. 05. 15.	1952. 02. 10.	
3	이 용 익	1952. 02. 11.	1953. 08. 31.	
4	박 용 원	1953. 09. 01.	1953. 12. 27.	
5	백 남 복	1953. 12. 28.	1957. 04. 22.	
6	김 재 남	1957. 04. 23.	1957. 10. 20.	
7	박 승 규	1957. 10. 21.	1959. 08. 18.	
8	강 봉 섭	1959. 08. 19.	1960. 05. 22.	
9	최 갑 조	1960. 05. 23.	1960. 10. 31.	
10	윤 광	1960. 11. 24.	1961. 06. 26.	
11	정 영 배	1961. 06. 27.	1962. 04. 14.	
12	박 석 주	1962. 04. 15.	1964. 06. 22.	
13	김 재 호	1964. 06. 23.	1966. 02. 11.	
14	주 봉 내	1966. 02. 12.	1966. 11. 19.	
15	김 문 수	1966. 11. 20.	1968. 04. 30.	
16	이 상 노	1968. 05. 01.	1970. 03. 02.	
17	김 정 동	1970. 03. 03.	1971. 08. 20.	
18	박 종 국	1971. 08. 21.	1973. 07. 08.	
19	윤 지 혁	1973. 07. 09.	1975. 01. 08.	
20	이 용 기	1975. 01. 09.	1975. 12. 30.	
21	정 채 균	1975. 12. 31.	1979. 05. 03.	
22	오 시 권	1979. 05. 04.	1980. 12. 04.	

순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23	박 선 배	1980. 12. 05.	1981. 12. 22.	
24	조 삼 규	1981. 12. 23.	1983. 12. 26.	
25	김 재 웅	1983. 12. 27.	1985. 05. 03.	
26	서 형 환	1985. 05. 04.	1986. 03. 07.	
27	임 두 일	1986. 03. 08.	1988. 06. 10.	
28	이 윤 하	1988. 06. 11.	1989. 01. 12.	
29	문 덕 형	1989. 01. 13.	1990. 08. 27.	
30	민 화 식	1990. 08. 28.	1991. 07. 15.	
31	문 병 일	1991. 07. 16.	1993. 03. 28.	
32	백 종 철	1993. 03. 29.	1993. 06. 25.	
33	박 재 순	1993. 06. 26.	1994. 05. 05.	
34	김 영 녹	1994. 05. 06.	1994. 12. 31.	
35	전 지 현	1995. 01. 01.	1995. 06. 30.	
36	김 재 홍	1995. 07. 01.	1998. 06. 30.	
37	윤 영 수	1998. 07. 01.	2002. 06. 30.	
38	윤 동 환	2002. 07. 01.	2004. 08. 30.	
39	황 주 홍	2004. 11. 01.	2006. 06. 30.	
40	황 주 홍	2006. 07. 01.	2010. 06. 30.	
41	황 주 홍	2010. 07. 01.	2011. 12. 09.	
42	강 진 원	2012. 04. 12.	2014. 06. 30.	
43	강 진 원	2014. 07. 01.	2018. 06. 30.	
44	이 승 옥	2018. 07. 01.	현 재	

2.

순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김 병 재	1975. 01. 09.	1975. 10. 31.	
2	김 은 석	1975. 11. 01.	1977. 03. 21.	
3	허 진 홍	1977. 03. 22.	1978. 08. 15.	
4	김 삼 석	1978. 08. 16.	1982. 11. 05.	
5	김 창 일	1985. 03. 26.	1986. 11. 02.	
6	박 천 규	1986. 11. 03.	1989. 09. 03.	
7	최 석 헌	1989. 09. 04.	1990. 01. 19.	
8	하 일 용	1990. 01. 20.	1991. 01. 18.	
9	정 권 용	1991. 01. 19.	1993. 08. 16.	
10	김 영 규	1993. 08. 17.	1995. 04. 14.	
11	신 남 식	1995. 04. 15.	1995. 07. 25.	
12	최 기 형	1995. 07. 26.	1996. 12. 31.	
13	신 상 수	1997. 01. 17.	1998. 06. 30.	
14	최 오 주	1998. 07. 01.	2001. 01. 03.	
15	이 점 관	2001. 01. 04.	2002. 08. 14.	
16	이 기 태	2002. 08. 15.	2003. 01. 21.	
17	황 남 길	2003. 01. 22.	2005. 01. 20.	
18	임 상 원	2005. 01. 21.	2006. 08. 28.	
19	김 웅 자	2006. 08. 28.	2007. 12. 30.	
20	이 광 형	2007. 12. 31.	2009. 01. 12.	
21	고 대 석	2009. 01. 12.	2010. 07. 27.	
22	노 두 근	2010. 07. 28.	2012. 01. 03.	
23	박 균 조	2012. 01. 04.	2014. 07. 31.	
24	정 승 준	2014. 08. 01.	2015. 01. 06.	
25	박 수 철	2015. 01. 07.	2017. 01. 04.	
26	안 병 옥	2017. 01. 04.	현재	

도의회 의원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비 고
제1대	차부진	1901. 09. 08.	민주당	강진읍 평동리 135	부의장
	김덕남	1916. 02. 18.	자유당	강진읍 교촌리 120-1	
제2대	차운영	1920. 07. 06.	자유당	강진읍 평동리 234	
	김용태	1918. 11. 04.	자유당	군동면 라천리 270-2	
제3대	배용훈	1917. 10. 21.	신민당	옴천면 봉림리 276-1	
	차운영	1920. 07. 06.	무소속	강진읍 평동리 234	
제4대	서재호	1940. 06. 06.	신민당	강진읍 남성리 55	
	박희주	1933. 03. 28.	신민당	마량면 마량리 986-70	후반기 부의장
제5대	차봉근	1946. 10. 27.	새 정 치 국민회의	강진읍 목리 90	
	윤영배	1951. 11. 21.	새 정 치 국민회의	칠량면 영동 1117	
제6대	차봉근	1946. 10. 27.	새 정 치 국민회의	강진읍 목리 90	후반기 의 장
	윤영배	1951. 11. 21.	새 정 치 국민회의	칠량면 영동 1117	
제7대	황호용	1944. 02. 01.	민주당	강진읍 평동 191-3	
	이종헌	1954. 07. 24.	민주당	군동면 호계리 중흥A 101/1503	
제8대	황호용	1944. 02. 01.	민주당	강진읍 평동 191-3	
	이종헌	1954. 07. 24.	민주당	군동면 호계리 중흥A 101/1503	
제9대	곽영체	1947. 12. 25.	새정치 민주연합	성전면 대월리 1075	
	윤도현	1943년생	새정치 민주연합	대구면 청자촌길 32	
제10대	곽영체	1947. 12. 25.	민주평화당	성전면 대월리 1075	
	윤도현	1943년생	민주평화당	대구면 청자촌길 32	

군의회 의원

. 제1대 강진군의회

1991. 4. 15. ~ 1995.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진읍	윤 옥 윤	46. 01. 16.	강진읍 평동리 201-1	전반기 의장
군동면	김 양 숙	47. 02. 26.	군동면 금강리 222	
칠량면	윤 도 현	43. 06. 12.	칠량면 영동리 1064	
대구면	황 호 만	41. 08. 23.	대구면 사당리 491	
마량면	윤 흥 오	47. 08. 07.	마량면 마량리 987	
도암면	윤 대 현	34. 12. 25.	도암면 만덕리 316	후반기 의장
신전면	정 판 식	48. 10. 19.	신전면 송천리 116	
성전면	박 재 걸	32. 08. 23.	성전면 명산리 1202	전반기 부의장
작천면	김 재 남	37. 12. 23.	작천면 삼당리 447	후반기 부의장
병영면	강 창 희	57. 01. 12.	병영면 하고리 224	
옴천면	박 팽 규	52. 10. 17.	옴천면 개산리 228	

. 제2대 강진군의회

1995. 7. 1. ~ 1998.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진읍	최 창 규	36. 12. 18.	강진읍 동성리 372 대신주택 201호	전반기 의장
군동면	김 양 숙	47. 02. 26.	군동면 금강리 318	
칠량면	김 원 중	40. 03. 20.	칠량면 영동리 1137-68	
대구면	황 호 만	41. 08. 23.	대구면 사당리 491	전반기 부의장
마량면	박 순 식	51. 02. 24.	마량면 원포리 643	
도암면	김 재 진	37. 07. 03.	도암면 항촌리 1124-1	
신전면	이 정 후	47. 08. 21.	신전면 용화리 산 118-1	후반기 부의장
성전면	강 영 석	49. 03. 15.	성전면 월평리 56	후반기 의장
작천면	김 창 언	39. 06. 25.	작천면 평리 251	
병영면	김 갑 현	39. 12. 15.	병영면 성동리 107-1	
옴천면	주 장 식	47. 03. 09.	옴천면 개산리 280	

. 제3대 강진군의회

1998. 7. 1. ~ 2002.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진읍	김 승 홍	41. 02. 13.	강진읍 동성리 192	전반기 의장
군동면	이 향 수	39. 04. 01.	군동면 금강리 597	후반기 부의장
칠량면	김 준 경	48. 10. 16.	칠량면 단월리 75	
대구면	황 호 만	41. 08. 23.	대구면 사당리 491	
마량면	윤 흥 오	47. 08. 07.	마량면 마량리 987-16	
도암면	윤 재 학	35. 03. 31.	도암면 항촌리 527-1	98.7.1.~00.6.30.
	윤 부 현	42. 05. 30.	도암면 항촌리 507	00.10.26.~02.6.30.
신전면	조 권 신	54. 03. 15.	신전면 수양리 65	
성전면	박 영 창	45. 04. 20.	성전면 명산리 1221	
작천면	김 재 남	37. 12. 23.	작천면 삼당리 447	후반기 의장
병영면	김 진 호	38. 07. 17.	병영면 삼인리 364	전반기 부의장
옴천면	김 동 신	50. 03. 11.	옴천면 기좌리 94	

. 제4대 강진군의회

2002. 7. 1. ~ 2006.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진읍	김 남 수	48. 07. 22.	강진읍 남성리 88-3 으뜸빌라 301호	전반기 의장
군동면	김 용 호	59. 02. 01.	군동면 화산리 834	
칠량면	이 병 채	54. 09. 18.	칠량면 장계리 140	전반기 부의장
대구면	황 호 만	41. 08. 23.	대구면 사당리 491	
마량면	윤 흥 오	47. 08. 07.	마량면 마량리 987-16	
도암면	윤 재 공	48. 08. 05.	도암면 항촌리 1077-2	
신전면	김 태 정	51. 02. 22.	신전면 용화리 55	
성전면	이 삼 현	52. 05. 02.	성전면 금당리 283-1	
작천면	김 은 식	58. 08. 16.	작천면 현산리 674	
병영면	김 규 태	46. 08. 20.	병영면 상락리 698	후반기 의장
옴천면	주 영 길	49. 03. 26.	옴천면 봉림리 132	후반기 부의장

. 제5대 강진군의회

2006. 7. 1. ~ 2010.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 진 가 지구	김 태 정	51. 02. 22.	신전면 용화리 55	전반기 의장
강 진 나 지구	이 삼 현	52. 05. 02.	성전면 금당리 36-1	후반기 의장
강 진 가 지구	김 영 수	50. 07. 20.	도암면 항촌리 1120	전반기 부의장
강 진 나 지구	김 용 호	59. 02. 01.	군동면 화산리 834	후반기 부의장 (08.7.1.~10.3.31.)
강 진 나 지구	정 삼 균	59. 01. 28.	마량면 마량리 846	후반기 부의장 (10.4.1.~10.6.30.)
강 진 가 지구	김 남 수	41. 04. 12.	강진읍 남성리 88-3 으뜸빌라 301호	
강 진 나 지구	김 규 태	46. 08. 20.	병영면 상락리 698	
비례대표	윤 희 숙	57. 03. 29.	강진읍 목리 7-3	

강진 - 가 지구 : 강진, 도암, 신전, 성전

강진 - 나 지구 : 군동, 칠량, 대구, 마량, 작천, 병영, 옴천

. 제6대 강진군의회

2010. 7. 1. ~ 2014.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 진 나 지구	김은식	58. 08. 16.	작천면 박산1길 33-1	전반기 의장
강 진 가 지구	윤재공	48. 08. 05.	도암면 도암중앙로 35	후반기 의장
강 진 가 지구	윤기현	56. 02. 29.	강진읍 보은로3길 30	전반기 부의장
강 진 나 지구	김상윤	50. 04. 24.	군동면 문화마을길 14-24	후반기 부의장
강 진 가 지구	김남수	48. 04. 12.	강진읍 보은로3길 55-1 으뜸빌라 나동 301호	
강 진 가 지구	윤희숙	57. 03. 29.	강진읍 금릉2길 51	
강 진 나 지구	정삼균	59. 01. 28.	마량면 삼마로 266-99	
비례대표	문춘단	63. 02. 28.	강진읍 삼일로 42 대동아파트 A동 107호	

강진 - 가 지구 : 강진, 도암, 신전, 성전

강진 - 나 지구 : 군동, 칠량, 대구, 마량, 작천, 병영, 옴천

. 제7대 강진군의회

2014. 7. 1. ~ 2018. 6. 30.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강 진 나 지구	김상윤	50. 04. 24.	군동면 문화마을길 14-24	전반기 의장
강 진 가 지구	윤재남	54. 07. 13.	성전면 성전도림길 37-1	전반기 부의장
비례대표	김명희	53. 09. 02.	강진읍 보은로 56	의회운영위원장
강 진 가 지구	위성식	55. 09. 21.	강진읍 중앙로 106-1	행정복지위원장
강 진 가 지구	배홍준	61. 07. 10.	신전면 신전중앙길 7	농업경제위원장
강 진 나 지구	문춘단	63. 02. 28.	군동면 백금포길 7 중흥아파트 102동 1202호	
강 진 가 지구	강승주	55. 08. 16.	성전면 거목길 20	
강 진 나 지구	정중섭	67. 10. 25.	군동면 석교로 179	

강진 - 가 지구 : 강진, 도암, 신전, 성전
강진 - 나 지구 : 군동, 칠량, 대구, 마량, 작천, 병영, 옴천

간부 공무원

2018. 6. 18.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조경언
군 수		강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황인준
부 군 수		안병옥	사 업 소		
기획홍보실	실 장	이형동	고려청자박물관	관 장	김국현
주민복지실	실 장	조상언	상하수도사업소	소 장	김용은
미래산업과	과 장	최치현	스포츠산업단	단 장	김영기
친환경농업과	과 장	송승언	다산기념관	관 장	임준형
환경축산과	과 장	이용현	도서관	관 장	김영구
해양산림과	과 장	김영기	읍 · 면		
문화관광과	과 장	이준범	강진읍	읍 장	임채용
지역개발과	과 장	윤영갑	군동면	면 장	최종남
안전건설과	과 장	정석기	칠량면	면 장	최종열
민원봉사과	과 장	윤상숙	대구면	면 장	조달현
세무회계과	과 장	마국진	마량면	면 장	김영일
총무과	과 장	강성일	도암면	면 장	김학동
직 속 기 관			신전면	면 장	백남태
보건소	소 장	송나윤	성전면	면 장	윤성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동근	작천면	면 장	황오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구영서	병영면	면 장	황용식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윤호현	옴천면	면 장	윤재평
의 회					
의회사무과	과 장	허경자			

42대 강진원 강진군수 취 임 사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
그리고 함께 해주신 멀리서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저는 뜨거운 감격과 엄중한 소명을 안고 제43대 강진군수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 고향 강진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5만 군민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과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온 열정과 신념을 바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군정 슬로건을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으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확신으로 군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크고 귀하게 들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예산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군비부담이 적은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확보한 국비지원과 도비 공모사업은 지난해에 235억원, 금년에는 6월말까지 25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군정 역사상 역대 최고의 규모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수축산업에 800억 원대라는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이라는 짧은 임기는 계속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해결, 그리고 부족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 사실상 10년 후 20년 후 우리 강진의 먹고 살 미래 대형프로젝트 추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겸손히 일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강진이 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만 군민, 20만 향우, 8백여 명의 공무원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것은 반드시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강진의 먹고 살거리와 군민 행복의 토대가 될 미래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다산선생의 애민정신과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강진발전을 제1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연인간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산의 애민정신처럼 군수와 공무원이 군민을 사랑하면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강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형사업이 발굴 창조되며,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분명히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강진발전을 위해서 미래비전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신 강진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전남 교통연수원'과 '어린이 교통랜드'는 2015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권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고속도로, 항만, 철도, 경비행기 공항 등을 아우르는 '신 교통메카 조성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량~제주간 여객선 운항, 신마항 개발, 해양레저 시설 확충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 조성중인 환경산단의 기업유치와 은퇴자도시 건설을 촉진하는 등 민자 유치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도암골프장과 성전월출산리조트, 성화대학 문제 등은 잘 해결되고 있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풍부한 농.수.축산물.청자 등 우리강진 자연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 강진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자원 Only 1과, 전국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Best 1 자원을 군민의 소득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즉, 강진의 명품, 명소, 명인 등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하여 강진 미래 소득의 선도적이며 개척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산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과감히 개혁 정비하겠습니다.

국비.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군민소득에 도움이 되고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예산만 세워 집행해서, 낭비가 없고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림 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전문경영인과 생산단체의 성과 및 기여도에 따른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군정 전 분야에 대한 효과성을 냉정히 분석하겠습니다.

열심히, 착실히 일한 사람들을 찾아 군민소득과 성과가 나오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등 행정이 군민을 제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효과성이 없고 아무 소득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열정과 희생 또한 필요합니다. 강진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람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군민의 역량을 키워서 군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을 이끌어 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풍부한 지하자원도 아니며, 넉넉한 자본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대의 자원이자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세운 이스라엘은 먹는 물조차 부족한 자원여건과 평소에도 주변 국가와 준 전시상태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이스라엘보다 10배, 100배 더 풍부한 자원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이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자기분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도전정신이 충만하다면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민대학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연구, 선진지 방문과 현지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선진 국형 농업.축산.수산.임업인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강진의 농업인, 강진의 축산인, 강진의 수산인, 강진의 임업인이 전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생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하의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생산기술교육, 영업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등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10년 후 우리 지역 살림의 주인공이 되고 미래강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업 잇기 2세에 대한 각별한 투자 지원을 통해 실력 있는 효자 일꾼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을 남해안의 휴양과 관광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라는 브랜드를 체계화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천 동.식물 체험공원과 영랑시인 감성학교, 청자빚기 체험, 성전 인성학교, 도암 다산 체험프로그램, 성전 어린이교통랜드 등을 아우르는 「감성학교 1번지」를 조성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 음식산업과 식품산업, 떡 산업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 유통, 브랜드화 하는 전략추진으로 맛 산업을 제1의 경제 산업으로 육성하여 '맛의 1번지 강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음악회, 수산물, 미항 등 탁월한 해양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마량에 수산물 토요 시장을 개장하여 마량이 활성화되고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기반 확충과 남도답사 1번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유치.안내.사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행정도 1등이 되는 행정체제 구축과 전문가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강진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며, 강진 출신이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강진의 이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땀과 희생,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 하려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강진을 만들어 봅시다.

강진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능합니다.
봄철에 힘들게 모내기와 물대기 등 정성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이 역할을 서로 하려 하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강진을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갑시다.
그럴 때 강진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우리 강진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때 군민 각자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진 전체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우리 강진의 꽃동산을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 애벌레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누에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된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군민의 행복과 발전 그리고 미래의 강진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가슴과 가슴을 활짝 열고, 손에 손을 맞잡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사랑하며 전진해야합니다.

때에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강진의 미래는 반드시 활짝 열리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군수인 제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효자 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살림 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강진군수 **진 원**

2015 년 사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향 각지의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1년은 여느 해보다 뜨겁고 보람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진이 잘 살 수 있을까',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에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우선 군정과제가
'전남공무원교육원 강진 유치'였습니다.
우리 강진의 백년대계를 밝혀줄 다시없는 기회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결과는 모든 군민들의 바람대로 유치 성공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치추진 업무를 전담했던 직원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는 새 눈물을 쏟았고 동료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유치 성공을 만끽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군민 여러분 역시 교육원 강진유치가 확정된 지난 17일 이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강진군민의 잠재돼 있던 열망이 희망으로 꽃 핀 순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향우들의 축하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강진에 살든 잠시 떠나 있든 강진사람 모두가 올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는 전남도내 16개 시군이 사활을 걸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전했습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자신들의 카드를 꺼내며 갈망했습니다. 하루하루 전쟁이었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며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이 밖으로 소리치며 유치를 외칠 때 우리 강진은 유치라는 큰 목표를 위해 말을 아끼고 물샐틈없는 전략과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준 군민들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진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한 배를 탄 마음으로 운명을 같이 하고 기쁨을 누릴 때는 함께 맘껏 노래하는 것이 우리 강진의 기질입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힘이 돼 주시는 군민 여러분,
항상 지원군의 몫을 넘쳐나게 해주시는 향우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우리 강진사람들에게는 북쪽의 개성상인에 절대 뒤지지 않는 성실함과 기지를 갖춘 '남쪽 병영상인'의 도전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군은 이 같은 도전정신에 바탕을 두고 올해를 '마케팅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강진세일즈'를 펼쳤습니다.

첫 단추로 올 1월 군 단위 최초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이 운영한 강진시티투어버스 '오감통통'프로그램은 인기 톱이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향후 재방문까지 유도했습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서너 차례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정도로 강진 마니아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위사, 강진다원, 영랑생가, 오감통, 가우도, 마량 놀토 수산시장을 돌며 강진의 진면목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버스는 매회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 관계자들이 실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군정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코스를 돌때마다 현장에서 만나는 강진사람들의 정과 친절은 일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전면에 둥지를 튼 전남교통연수원과 전남안전교육종합체험관은 도암면에 들어설 전남공무원교육원과 함께 우리 강진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계획된 인원만 연간 5만명 이상의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강진을 찾아 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강진의 정과 친절을 맘껏 베풉시다.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는 전남지역 2200여개 섬 가운데 6곳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선정되기 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무려 3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 청자모양의 전망탑이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가우도와 강진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케 합니다.

가우도 주민들의 더 나은 서비스와 친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 선제적인 마케팅은 강진을 사람들로 붐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도답사 1번지를 넘어 감성여행 1번지로 강진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성여행 1번지'프로그램 가운데 필링은 업하고 스트레스는 날려버리는 '푸소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감성을 채워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박2일 또는 2박3일 농가에 머물며 외할머니 밥상에서 옛 이야기를 듣고 농사체험을 했습니다. 참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칭찬과 함께 내년부터 실시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미 푸소체험 농가로 등록한 100여 가구의 주인내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대1로 푸소체험 일정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어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인근 지자체 보다 오히려 품질에서 앞서고 신선한 수산물과 농특산물을 훨씬 저렴하게 내놨더니 역시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멀리 바다건너 울릉군청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선진지로 견학 올 만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 수산시장이 됐습니다. 마량항까지 이어지는 국도 23호선 교통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자 입소문이 번지면서 부산 영남권에서도 대형 관광버스를 탄 관광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시장으로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할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도 멋지게 이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람이 큰 것은 또 있습니다.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각종 특산물을 전국 고객들의 안방까지 택배로 서비스하는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의 성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은 생산 못지않게 이제는 유통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유통의 혁신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고정 고객수도 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쌓인 만큼 소득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꾸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더욱이 문화산업은 최소 3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수년간 군민의 힘을 모아 결실을 이뤘듯 문화복합형 시장인 강진읍내 오감통 역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진읍의 활성화는 도교육원의 운영과 긴밀한 연계가 절실하고 이는 오감통이라는 문화복합형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3년 뒤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 감성체험 참가자,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 몰리도록 관련사업을 적극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 성공에 유무형의 자산으로서 강진의 상징성을 어김없이 보여준 다산의 가르침과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무위사, 강진다원, 백운동 정원, 청자박물관 관광활성화에도 관심과 정성을 쏟겠습니다.

새해에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마량~제주 간 화물선 취항에 따른 신마항 활성화, 세계모란공원, 석문공원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강진 10대 건강식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군민 소득으로 연계해 군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 오셨습니다.
개인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난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꿋꿋이 일어서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하면 열매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년에도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은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일에 군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쟁 같았던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 성공을 이뤄냈던 자부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모든 일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어깨를 한껏 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는 강진의 미래가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배려합시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강진군수 강진원 드림

2016 년 사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향 각지의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작년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전남공무원교육원 강진유치에 성공했던 기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해는 작년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성공했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진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방법은 뭘까'를 고민합니다. 군 행정의 최고 핵심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저를 포함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며 특단의 대책은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입니다. 지난 5월 군민의 날에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한 이후 모든 행정력과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최대 주력산업이자 주소득원이 농업이기 때문에 군민소득 확대를 위해 군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농수축산분야와 기반조성에 투자했습니다.

푸소체험을 포함한 감성문화마케팅을 적극 펼쳐 농가마다 수익이 늘게 했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역시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이 있기에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강진 방문의 해 민관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5개 분야로 역할을 맡아 군민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행정이 이를 최대한 뒷받침 하는 체제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한 차원 높은 친절과 청결,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열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활성화와 군민들의 더 나은 살림을 위해 행정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른바 '돈 버는 행정'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러한 수익이 군민소득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0월 가우도 정상에 청자타워를 세우고 이 안에 국내 최장 길이의 짚트랙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31개에 이르는 전남권 시·군의 전망탑이 많게는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반해 가우도 짚트랙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연간 1억 원의 사용료를 선납 받고 수익에 따라 50대50 균등배분을 통해 이익이 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짚트랙 탑승권 2만5천원 가운데 5천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이용객들이 우리 고장에서 사용토록 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민들은 1만5천원에 짚트랙을 탈 수 있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구매와 사용 확대는 우리 몸 안의 피처럼 소리 없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각종 지원금이나 시상금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군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이나 기관·사회단체 각종 행사 때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행정이 앞장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1번지답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공직관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온 교육생이 7천명을 넘었고 교육비 수입으로만 11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인근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민간에 위탁해 연간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고 고바우전망대 카페 '분홍나루'를 민간 위탁해 연간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선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마량항 앞바다에 조성중인 해상 북카페 역시 최고수준의 계약금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같은 강진군의 돈 버는 행정은 광역지자체도 하기 힘든 다양한 수익모델이자 정책으로서, 군민들과 향우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이자 군민 여러분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지난 10년간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강진골프장 공사가 드디어 시작된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 아래 전략을 세우고 군청 관련부서 직원들의 끊임없는 설명과 사업자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진군민은 하고자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든 것입니다.

골프장 완공까지 모두 5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연간 5억 원 안팎의 지방세가 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만한 쾌거입니다.

우리 강진경제에 활력을 보태는 기쁜 소식은 또 있습니다.

강진군이 전남도내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최고, 최대 음식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유치했습니다. 작년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성공 때처럼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군민들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붙였고, 이 소식을 들은 향우들은 축하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서로 보내며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전남도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5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음식업 종사자들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국 관광객들이 우리 강진으로 몰려옵니다. 큰 기대를 걸어도 됩니다. 강진읍을 포함해 강진전역이 들썩일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강진의 정과 인심을 맘껏 자랑하고 우리가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제대로 알려 소득으로 반드시 연계할 작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저와 강진군 역시 단순한 행사개최가 아닌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여기고, 군민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군민소득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넘치는 강진군민 여러분,
경향 각지의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렇듯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내고 있지만 군 살림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보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100% 국비를 따내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덕에 올해는 작년 822억 원보다 무려 368억 원이 많은 1천190억 원을 따 왔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300억~500억 원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액수가 큰 국비사업을 보면 마량항 정비사업 235억 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0억 원, 강진천 고향의 강 정비 190억 원, 사내방조제 120억 원, 삼인지구 배수개선 86억 원, 귀리 명품화사업 1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의 노력으로 올 연말까지 정부로부터 따 온 특별교부세 명목의 국비가 43억 원에 이릅니다. 역시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사활동과 주민들의 보행, 교통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힘이 돼 주시는 군민 여러분,
고향사랑이 넘쳐나는 향우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듣고 30년 전과 비교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쌀값 하락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쌀 구입 확대 등 군 자체 대응과 함께 전남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로 하나로 올해 강진읍내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첫 선을 보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선진 군민의식은 놀라웠습니다.

올해 완공한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와 물놀이장, 작년보다 매출이 대폭 증가한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음악창작소와 전통시장이 결합돼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잡은 오감통, 감성여행 1번지 조성 사업이 서로 맞물리면서 강진의 경제·관광 지도가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발전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모든 일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믿고 다독거리며 서로를 배려합시다.

새해에는 강진의 미래가 더욱 활짝 필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강진군수 드림

2014 년 사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갑오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말의 기상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청마의 상징인 행운과 성공이 가정과 직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거둬 올린 가시적인 성과들을 통해 5년, 10년 후 '행복한 강진시대'를 활짝 열어줄 강진만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어느 지자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군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을 대거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강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여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어느 해보다 실속 있고 값진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경향각지의 향우,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땀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행복을 배가하기 위해 희망찬 미래 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군정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미래 핵심 자원이 될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 즉 사람 중심의 행정에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를 전문적인 농업 CEO로 양성하고, 젊은 후계자 및 2세들의 안목과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 여성, 사회단체 회원을 지역의 리더로 양성하고, 음식업, 미용업, 상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와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별 학습단체를 전폭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군민대학과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강진만의 Only 1, Best 1 전략으로 '강진의 꿈, 미래 비전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교통연수원 유치 성공을 계기로, 우리 군이 호남권의 교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도로·항만·화물 공용차고지·경비행기 공항 등을 아우르는 '신 교통메카 조성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를 추가로 유치하고, 마량~제주항 여객선 취항과 국도 23호선 선형개량사업, 경비행기 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진 미(美) 프로젝트'와 '강진의 Only 1, Best 1 프로젝트' 즉, 명인·명품·명소사업을 연차적·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희망찬 강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 사례와는 차별화되는 강진만의 블루오션 전략으로 군민의 실제 경제소득을 배가하겠습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8년 연속 선정된 고품질 강진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40%인 5,220ha까지 늘리고,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 단위 온라인 마케팅과 팜파티 등 직거래를 점차 군 차원으로 통합하고, 농기계를 맞춤형 투-트랙으로 공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황칠 등 대표적인 경제수종을 집중 육성하고, 축산사료 구매 자금에 대한 이차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에서도 강진만 패류 메카 조성, 강진 관광마케팅 재단 설립,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배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행복체감 지수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1일 1시간 운동'을 범 군민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고, 보건소를 증축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하는 '행복 25시! 희망나눔 사업단'의 생활 밀착형 통합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나눔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SOC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강진읍과 칠량면에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겠으며, 마량면과 도암면 소재지를 쾌적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 오감누리타운을 상권은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복합형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주고, 강진고를 명문 거점고로 지정·육성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타 시군에 앞서는 크고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열정과 땀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강진만이 가진 강점과 강진인이 가진 장점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 큰 생각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향, 강진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차게 도약합시다.

올해에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좋은 꿈 이루시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일
희망찬 새해 아침에, 강진군수 **강 진 원**

2015 년 사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강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인드가 쌓여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저는 새해를 '강진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6기 출범 시 밝혔던 강진 미래발전 '30-30 프로젝트' 중 '맛'과 '감성관광' 그리고 '농수축산물'과 '강진사람의 따뜻한 정과 인심'을 파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감누리타운 조성을 통해 강진이 맛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면서 더불어 강진읍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서 마량항의 아름다운 바다경관도 보고 값싼 수산물도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어우러지게 하겠습니다.

강진관광에 감성을 불어넣어 전국의 학생들과 관광객 스스로가 찾아와 힐링하면서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수축임산물은 유통비용 절감이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에게 강진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서 노년이 행복하고 아름답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가 세는 일이 없도록 해서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여성인력이 강진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도 더 확대하여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강진의 미래자원인 청소년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인성이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투자하겠습니다.

군민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군민의 파트너인 공직자들의 역량을 전국 제일로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새해에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비롯해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강진을 잘 마케팅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과 뛰어난 관광자원, 그리고 멋있는 강진사람을 전국에 마케팅해서 강진을 도약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강진이 아직도 낙후의 대명사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내야 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 역시 남이 아닌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강진군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굳센 용기와 자긍심을 믿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강진을 만듭시다.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는 강진인이 됩시다.

내가, 우리 마을이, 강진 사회 곳곳이 이러한 큰생각과 열린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강진의 운명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훌륭한 선장은 거친 파도가 있어야만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는 꿈꾸고 개척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부터 솔선해서 실천합시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 농어업인, 학생, 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모든 군민이 힘을 모아갑시다.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양은 희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 강진군민이 조금만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강진에는 분명 평화와 번영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강진군수 **진 원**

2016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전남 공무원 교육원 유치 성공으로 온 군민이 감격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붉은 원숭이의 영특하고 민첩한 기운을 받아 가슴에 품은 소망들을 모두 이루는 진취적인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강진의 백년 미래를 밝혀줄 대형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강진 마케팅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강점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킨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특히, 도 단위 기관인 교통연수원에 이어 공무원교육원까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크나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은 어느 때보다 충만해 있습니다. 가슴 벅찬 희망으로 모두가 설레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성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큰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 교통연수원에는 올해부터 당장 연 5만 여 명의 교육생들이 몰려와 지역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완공되면 마찬가지로 연 10만 여 명이 몰려와 우리 군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될 것입니다.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 관광지에 속속 흘러 들어가 강진군 전역에 직접 소비가 크게 확산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주민들의 실제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에 교통 연수원과 남에 공무원 교육원을 양대 축으로 강진 산단과 오감통,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 감성여행 등을 연계하여 군 전역을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역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강진 사람들의 정과 인심, 친절함으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강진 마케팅의 해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다져놓은 기틀 속에 올해도 희망찬 정책 과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순항하고 있는 군정 4대 핵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6대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가하여 '군정 10대 희망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도 이제는 익숙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 4대 핵심 프로젝트는 강진오감통, 감성여행, 마량 놀토 수산시장,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올해 새롭게 도전할 6대 프로젝트는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강진읍 노래도시, 세계모란공원과 석문공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강진 산단 분양과 미해결 투자유치 성사, 신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미래를 밝혀줄 '군정 10대 희망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어린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들도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큰 성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희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군민의 현실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어업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혁신 농법을 확대 보급하여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벼 무논점파 면적을 늘리고, 연과 작약, 모란, 토하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 6차 산업화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통해 어민들의 경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한우 브랜드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활성화하여 축산물 직거래 판매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품질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질 개선제 등을 적극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도 배가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마케팅 하겠습니다.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교육생과 관광객이 환호하는 매력 있는 감성여행지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강진만의 흥과 멋과 맛이 어우러진 오감통은 앞으로 교육생과 관광객들이 여가와 소비 활동을 위해 가장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입니다.

대비하여 강진읍을 감성과 낭만이 흐르는 활력 넘치는 노래 도시로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강진의 새로운 명소가 될 세계 모란공원과 석문공원 사랑+ 구름다리는 올 여름에 완공하여 개방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개최하여 순천만에 버금가는 강진만의 갈대숲 비경을 전국에 알리고 생태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줄 강진 산단은 조기에 분양하고, 미해결 과제인 강진 골프장과 성전면 월남 리조트 사업의 투자유치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새봄에 개항하는 신마항은 화물선이 조기에 취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군민의 행복지수와 자긍심이 높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세심하고 따뜻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후에 외롭지 않도록 감성 소통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책을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와 강진 미(美)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의 정서와 자긍심도 높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휴먼웨어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강진의 꿈을 실현할 군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자치대학은 감성여행대학, 마케팅대학, 음악대학 등 8개 대학에 10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를 전문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 맞춤형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열망 속에 강진의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가슴 벅찬 이 소중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강진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멋지게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회의 땅, 창조의 땅 강진을 만들어 갑시다.

저 또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군정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6년 1월 1일
강진군수 **진 원**

2017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여는 정유년 새해가 감격의 빛을 발하며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밝고 총명한 붉은 닭의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합니다. 이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과 사랑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경제 불황과 가뭄 피해, 쌀값 폭락 등으로 어느 해보다 살기가 팍팍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에 강한 우리 군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똘똘 뭉쳐 역대 최고의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특히, 군정 사상 처음으로 국도비 확보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며 '군 살림살이 3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기쁜 일은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군이 지방채무가 전혀 없는, 즉 빚이 없는 자치단체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 저와 공직자들의 투지와 노력이 이뤄낸 눈물겨운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65억을 더 확보한 국도비 104건에 1천190억 원은 강진의 꿈을 실현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재원을 밑거름 삼아 새해에는 군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펴겠습니다.

주력 산업인 농·림·축·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16억 원을 늘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5%에 달하는 95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정책들을 도입해 소규모 영세 농가와 소수 농가, 여성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고품질 품종 장려금을 호평벼는 160ha까지 늘리고, 일미벼도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 대체 작목과 연 재배 면적도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리도록 돕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패류 중간 종패대를 가리맛에도 지원하고 문어와 낙지, 전복 보관 저장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한우 농가에 도내 최초로 계통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여 소득 안정화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와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휴먼 파워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군민의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전액 면제해 드리겠으며, 교육·연수를 확대 지원하여 군민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새해에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유치하고, 지역축제와 청자 산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는 숙박업소와 식당, 민간요 등 관내 업체에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정된 스포츠대회는 18종목에 38개로 연인원 5만8천 여 명에 46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1 ‘강진 겨울바다 여행’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여는 테마형 지역축제도 직접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10월에는 앞으로 3년간 우리 군에서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개최돼 읍 상권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성공을 거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3일간의 오감통 음악여행’도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지난 축제에서 우리 군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축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강진만은 ‘순천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365일 찾고 싶은 국내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이 하면 성공한다’는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자신감과 성공을 디딤돌 삼아 아름다운 강진만을 박차고 나는 큰고니처럼 우리 강진군이 더 힘차게,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군이 올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강진 방문의 해’가 마중물이 되어 지역에 활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군민의 실물경제 또한 날개를 달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향우 여러분!

‘강진 방문의 해’는 올해 더 심화될 불황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강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 심리까지 얼어붙게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같은 경제 불황은 살림이 더 힘든 농어촌과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저력 있는 우리 군민들은 이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강진 방문의 해 성공 여부는 군민의 열정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손님을 맞이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집안 안팎으로 청소도 해야 하고, 즐겁게 놀거리와 먹거리도 준비해야 해서 돈이 들고 힘도 들 것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오신 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두세 배 이상의 선물, 다시 말해 직접적인 소득을 안겨주고 갈 것이기에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불황을 뚫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친절과 청결, 신뢰로 중무장하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합시다.

군에서도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겠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여는 궁극적인 목표는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 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창적인 전략으로 '문화·감성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관광이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위탁한 가우도 짚트랙 운영에서 이미 효과를 보고 있듯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 버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강진사랑상품권 유통도 관광산업 등 군정 전 분야에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행복을 꿈꾸고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뤄지도록 '강진 방문의 해'를 반드시 성공하여 감동과 기적을 만들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저력 있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강진 방문의 해'도 멋지게 해내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큰 행사를 통해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한층 성숙해지고,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남해안 관광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그 성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먼 파워 강진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군수인 저와 800여 공직자도 가장 앞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1일
강진군수 **진 원**

2018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18년 황금빛 개의 해인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물질적으로나 마음까지 황금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매년 그러하듯 참 다사다단 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촛불혁명에 이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살충제 계란 파동, 제천 화재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군수 재임 5년 6개월 중에 가장 보람된 한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군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치른 것, K-POP 콘서트로 강진에 사람이 몰려오고 강진을 널리 알린 것, 군 예산 4천억 시대를 처음으로 연 것이 떠오릅니다.

새해에도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튼튼하게 다져온 기반 위에서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이 6천만 원이 달성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부자 농어촌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 경영안정자금을 50억 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총 88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소득 성장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소농과 여성, 고령자가 주로 일하시는 밭농업 농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추가 지원액 5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업 분야는 물론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에까지 경제효과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온 다양한 축제행사와 초록믿음직거래, 푸소체험과 같은 문화감성 관광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소득과 연계되는 6차 산업으로의 정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한 선진농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상업의 활력을 통해 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2018년을 강진만 'A로의 초대'의 해로 삼고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한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인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가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한분 한분이 편안하고 외롭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돌보고 챙기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세우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곳,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장소와 일거리를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는 강진을 사랑하고 실력과 인성과 감성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데 필요한 투자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누가 뭐래도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요, 문화와 예술의 본향이요, 고절한 품격이 있는 지역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의 고향 강진을 지키고 일궈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시켜 항상 미안한 공직자 동료 여러분!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응원은 이기라고 하는게 아니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엔 서로서로를 응원하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그 응원 속에서 후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강진의 역사를 힘껏 써 가겠습니다.

새해엔 내 고향 강진과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진군수 강진원 드림

2014

219회 군 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25.(월) 10:00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재공 의장님과 김상윤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믿음직한 대변자이자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 일선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군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과 희망찬 미래 비전과 전략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윤재공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취임하면서 군정 슬로건을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으로 정하고, 휴먼웨어(Human Ware), 즉,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취임 첫 해인 작년에는, 모든 행정의 포커스를 '열린 마음'에 맞추고, 군민들과 진심을 다해 대화하면서 막힌 곳, 막힌 정책, 폐쇄된 문화들을 하나 둘씩 거둬 내고 화합과 신뢰의 주춧돌을 놓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나, 강진 지역적으로나, 즉, 행정 대·내외적으로 대형사건·사고하나 없는 조용하고 안정된 행정체제 속에서 실속 있는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큰 생각'을 가지고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5년, 10년 후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강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군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크고 귀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정책 대안과 경향각지 향우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강진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율이 80, 90%로 높고 군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사업은 반드시 따오겠다는 일념으로 저의 오랜 공직경험과 풍부한 중앙부처의 인맥을 총 동원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규모 신규 국비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등 공모사업 부문에서 38건에 235억 원, 전체적으로는 92건에 52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공모사업에서 거의 3배, 전체적으로는 약 15%가 증가한 금액으로 군정 역사상 역대 최고의 규모입니다.

이제 강진에서는 그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중·대형 현안사업들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활기차게 추진될 것입니다.

공모사업 이외에도 금년에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값진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 제41회 강진청자축제는 올해 개인요 중심의 주민 참여형 축제로 개편하고, SNS 등 온라인 실시간 홍보를 강화한 결과, 마지막 날까지 성황을 이루었으며, 매출 또한 작년보다 91%가 증가한 4억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 22일 현재, 가맹점 506개 업체, 판매액 21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명실 공히 강진 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 화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기탁제도를 새로 도입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각급 사회기관 단체와 군민들의 기탁이 줄을 이어 장학기금이 작년보다 13% 증가한 14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와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은 일본 럭비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국내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마케팅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달라진 행정과 놀라운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5만 군민의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재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 후의 강진 미래 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다섯 가지의 핵심 전략을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핵심 자원이 될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 즉, 사람 중심의 행정에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을 만드는 것은 시설과 제도 등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 들어온다 해도 이것을 재생산하여 실질적인 소득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최대의 자원이자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안목과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즉, 배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철학으로, 군민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강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군민대학과 분야별 학습단체 등에 적극 투자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를 농업 CEO로 양성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농한기에 전문교육과 연구 토론회 등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5년, 10년 후 강진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자와 2세들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 현장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장·여성, 사회단체 지도자를 지역의 리더로 양성하고, 음식업, 미용업, 상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능별 학습 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맞춤형 군민대학과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진만의 전략사업으로 '강진의 꿈, 미래 비전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림자만 바라보면 등 뒤의 태양을 볼 수 없고, 먹구름만 탓하면 그 너머에 있는 가려진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과도 같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늘이 선물처럼 숨겨둔 강점 있는 자연과 장점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군민들과 함께 연구·토론하면서 평범함 속에서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진만의 Only 1, Best 1을 찾아서 육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적인 기후변화와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진만의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비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비전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신 교통메카 조성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위해, 교통 관련 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도로·항만·화물 공용차고지·경비행기 공항 등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교통연수원'과 '어린이 교통랜드'는 2015년 5월까지 완공하고, '호남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마량~제주 간 항로 개설'은 내년 초에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류 중인 '국도 23호선 선형개량사업'과 '경비행기 공항 건설사업'은 빠른 시기에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핵심사업으로, '강진 미(美) 프로젝트'를 강진군 전역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에 선정된 탐진강~강진만 생태 탐방로 조성'은 연차적으로 40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구간을 꽃과 생태식물, 철새와 갈대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힐링 명소로 가꿔 나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가우도, 보은산, 고성사 가는 길, 석교천변, 주요 도로변 등에 연차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계 모란공원 조성'은 보은산 도시공원까지 확대 추진하고, 2018년까지 총사업비 872억 원을 투자하는 '월출산 관광 명소화사업'은 경관이 아름다운 월출산 권역을 비롯, 백운동과 무위사 권역, 월남저수지 권역을 관광 벨트화하여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람이 공존하는 강진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미(美) 프로젝트'는 강진 전역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새로 입히는 작업과도 같으며, 이를 통해 5년, 10년 후 미래의 강진은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행복을 주고, 관광객에게는 '가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핵심사업으로, '강진의 Only 1, Best 1 프로젝트' 즉, 명인·명품·명소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명인 육성사업은 올해 농·수·축산업 명인으로 지정되신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육성사업은 미래 강진의 비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은 장기 시범사업을 통해 강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올해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된 명품 한우와 명품 청자, 여주 등은 내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강진의 일등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한편,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이 '음식 산업의 1번지'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최근 보양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춘탕과 한정식을 강진의 명품 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으로 군민의 실제 경제소득을 배가하겠습니다.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IT)에 기반한 스마트 혁명으로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 군민의 경제소득이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분야별로 기존의 방법과 타 시군의 사례와는 차별화되는 강진만의 블루오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는,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 전체 경지의 40%인 5,220ha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늘려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8년 연속 선정된 강진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학교급식 판로개척 등 쌀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전략사업으로 가능한 시범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생산농가에서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과 팜파티 등의 직거래를 앞으로 점차 군 차원으로 통합하여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대형과 소형 등 맞춤형으로 투트랙으로 공급하여 경영비 부담과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임업분야는, 황칠 등 대표적인 경제수종을 집중 육성하고, 보은산과 주작산 등 산림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산림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산사료 구매 자금에 대한 이차 차액을 내년에는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유통센터와 전문 생산단지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강진 한우 명품화사업'은 미래 명품 육성과 연계하여 강진 한우를 일등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다음 수산업 분야는, 강진만을 패류메카로 조성해 패류 모패장 및 중간 종묘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문화관광 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배가 되는 블루오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안내·사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진 관광 마케팅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청자축제 시기에 개최하는 '제1회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는 금년 청자축제와 같이 청자 판매에 초점을 두고 실속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불과 토하, 메뚜기 등 지역 특산품을 축제자원으로 발굴하고, 이벤트가 다양한 농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관광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범 군민 1일 1시간 운동하기'를 확산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바쁜 농작업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여성 농어업인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지원과 제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건소 증축 사업'에 총 17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군민이 실생활에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로 세심하고도 따뜻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 25시! 희망나눔사업단'의 생활밀착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나눔운동'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등 SOC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강진읍 동서빌라에서 강진의원 간 도시계획도로 등 7개 구간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4개 구간의 확포장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강진읍과 칠량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마량면과 도암면 소재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터전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진읍에 활력을 주고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강진 오감 누리타운'은 지역 상권은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강진고를 명문 거점고로 지정.육성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초.중.고생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등 공교육 지원에도 힘써 우수 학생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빈 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 일반회계는 12.9 %가 증가한 2,7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2 %가 증가한 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13%가 증가한 315억 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63억 원, 지방세 수입이 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연초부터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열정과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를 이처럼 많이 따오고, 유가보조금이 반영됨에 따라 세입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의무적인 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세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군비 부담액이 13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28%에 육박하는 1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 직불금 또한 11%에 해당하는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트홀 상환금 62억 원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더해져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썩 좋은 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자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림·축·수산업 분야만큼은 확실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7%가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9.1%에 해당하여 금년 30.8%에 비해 수치로는 1.7%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농업과 임업분야가 각각 38억 원과 32억 원이 증액되어 실제로 보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순학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5년, 10년 후 군민 소득과 행복을 배가 할 수 있는 전략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찬 정책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재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강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 허리띠를 졸라 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군의 예산과 자원이 지원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타 시군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이 다산의 애민정신을 가지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이장과 사회단체장, 공무원, 종교인, 의원, 국회의원, 군수 등 지도자, 그리고 모든 군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의 고향, 강진은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강진만의 강점자원을 바탕으로, 열정으로 가득한 5만 군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 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온 열정과 신념을 바쳐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한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욱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5.
강진군수 **진 원**

2015

225회 군 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4.(월) 10:00 / 본회의장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진군이 지난 11월 14일 제17회 전라남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자치단체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하다.“라는 정책기조를 여성단체에서 높게 평가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때에 저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상은 저절로 뒤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행복해야 할 대상이 어디 여성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어르신들과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그리고 노인어르신, 학생과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진은 저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용기도 있었고,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란 말도 있듯이 병영에서 만주까지 진출하는 도전정신과 기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용기와 도전과 기개는 부분적으로 배타와 소지역주의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시금 강진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장의 먹거리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통큰 생각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선6기가 출범 하자마자 30-30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편과 불이익은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배려와 이해의 강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큰 생각을 가진 강진,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온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은 이러한 강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을 놓고 씨앗을 뿌리는, 강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진고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온 군민이 노력해 불가능 했던 거점고로 지정되어 23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과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 세계모란공원과 보은산 O2 공원 조성사업 등이 차츰 관광명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아트홀을 이용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지수' 군단위 전국 1위라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제42회 강진청자축제는 올해 최초로 한중일 도자문화축제로 승화 발전되어 이틀 앞당겨 폐막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15%가 증가한 6억 3천만 원의 청자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한 사초리 개불축제와 작천 황금들 메뚜기축제는 군민 소득창출이 가능한 경영형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품질고급화 사업을 펼쳐 한우등급률을 최하위권에서 전남 6위권까지 끌어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연간 2만1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립해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군민들이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과 많은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을 통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금년 235억 원보다 두 배가 넘는 507억 원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강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등 막바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내년 국·도비 예산확보의 마지막 주간 이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그리고 전라남도 정리추경 등, 마지막 예산 배정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전 공무원들은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도 재해재난관리기금 2억원, 행자부 건전재정평가 상사업비2억 원, 안전체험관 5억 원, 다산체험 향토산업 30억원 확정 등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성과를 지난주에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5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의 결실로 확보된 소중한 예산은 아끼고 절약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반드시 군민의 미래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예산확보 때의 마음으로 예산 집행에 전 공무원이 더 지혜를 모으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 희망찬 새해에는 이러한 기틀 속에서 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갖고 강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진 미래발전을 위한 '30-30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자마자 저는 강진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대상으로 미래발전과제와 우리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개혁혁신과제, 그리고 사람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중심의 소통과제 등 총 34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중 임기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60 **사업을 '30-30 프로젝트'라 명명**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게 될 미래비전 30대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 '경비행기 공항 건설',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 등이고 역량강화 30대 시책으로는 '맛 산업을 제1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 '저비용.고효율 농업 육성', '군민참여로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입니다.

이들 60가지 사업과 시책을 군정운영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이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4가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추진기획단'을 꾸려서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음식과 농.수.축산물을 주제로 한 "오감누리타운"과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그리고 남도답사 1번지라는 유명세를 등에 업은 "감성관광 1번지로서 재도약", 농업인, 수산인, 축산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촉진"이 그것입니다.

즉,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역사문화, 농·수·축산물 등 강진의 모든 것을 마케팅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강진 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갈등과 아픔, 고생과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적은 아픔과 갈등으로도 강진의 변화와 성장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회적 자본 함양과 내부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불친절, 무질서, 부정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나쁜 지역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진군민에게 신뢰, 친절, 질서 등 좋은 사회적 자본은 단순히 정신운동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튼튼한 기초를 형성하고, 보이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남을 배려해서 주차하고, 친절한 미소가 있으며, 거기에다 인심마저 후하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덤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로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정직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소문난다면 강진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다면 소비자는 알아서 강진산을 사먹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친절·질서 등 사회적 자본함양과 더불어 우리 강진군민의 내부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중심이 되는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인력을 전문화시키고, 각종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고향인 강진을 떠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며, 꿈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념과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강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소득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 넘어 1000년을 가는 명문 장수가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경영인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핵심자원이 될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 즉 사람중심의 행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수산업에서 땀 흘리는 분들, 서비스업에서 강진을 알리는 분들, 미래의 강진자원을 키우시는 학부모, 일선 현장에서 군정을 전파하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등을 위해 각 분야별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최대 자원이 될 사람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배운 재능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종교단체, 동아리,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도 높여 드려 '1등 자원봉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군 공직자들에게도 업무능력, 친절, 창의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례·현장교육 강화 등 꾸준히 투자하여 전국에서 최고로 친절하고 실력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민.어민.축산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는 농업정책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국 및 호주와의 FTA 타결,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비용도 낮추어야하고 품질은 더 좋아져야하며 일손부족도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 쉽지만은 않습니다. 농·수·축산인들의 열정과 창의력, 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강진만의 소득육성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존 모내기보다 60%이상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무논점파 농법을 1,000ha까지 늘려 나가고, 무인 항공기 방제를 확대 실시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벼 소득보다 높은 백련 등 소득 작목으로 전환 육성하고, 서리태, 유색미 등의 '기능성 웰빙 농산물의 명품화'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와 택배를 통해 판매하는 '직거래 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지역 농·수·축산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업 유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거래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부녀회, 협회,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미래 고객 유치를 위한 감성.문화 마케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분야는 살포용 종묘와 꼬막 모패장을 집중 육성하여 '강진만 패류메카'로 조성해 나가고, 미항 마량관광과 연계한 "강진 마량항 수산물 토요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 강진 수산물을 많은 사람이 먹고 가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최고 자원인 맛,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감성 관광 1번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오감누리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길거리 음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음식명가인 강진한정식과 회춘탕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

오감누리타운은 커뮤니티센터, 먹거리장터, 한정식체험관, 야외무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여 강진읍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효자가 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1,300명 이상이 다녀간 다산체험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체험코스를 더 확대하고 영랑시인감성학교, 성전인성학교와 어린이 교통랜드 등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넓혀갈 수 있는 '감성 및 생태관광 1번지'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가우도 종합개발',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청자촌 공원화'를 통해 강진에서 마량까지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고, '세계 모란공원'은 연차적으로 공익조림과 숲길 쉼터 등을 조성하는 '보은산 V랜드와 O2공원'을 연계하여 강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명품 휴양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략품목인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RED 3' 브랜드를 활용한 '소득창출형 지역특화 축제' 발굴과 금년에 발족한 '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이이다市의 학생 감성관광 성공사례와 같이 관광객의 유치와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강진관광 활성화의 구조의 틀을 새롭게 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건강과 행복지수가 배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군민들이 운동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체육과 문화향유를 활성화시키는 '군민건강 배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 등을 위해 사업장 근처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3시 4시 짬짬이 건강교실' 등 군민 생활 체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강진군민 만들기'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창의적 사고 배양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금연, 절주, 구강, 비만예방 등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군민 행복지수 배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동아리, 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을 더 전문화, 더 활성화하여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안부살피기, 응급안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와 아동, 다문화가정,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별로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민 안전도 항상 살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 위험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성전 교통행정연수원에 국.도비 10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 체험 교육관을 설립 운영하고, 전액 국비사업인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많은 외부 학생과 민간인이 참여하여 우리 강진이 국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0.4%인 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0.2 %가 증가한 2,7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7 %가 증가한 7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 증가가 미미한 이유는 정부의 세손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긴축재정을 통한 내실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데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 6.5%에서 7.7%로 조금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전남도 시군 중 하위 4번째로 매우 취약합니다.

여기에다 아트홀상환금과 운영비 등 55억원, 벼 경영안정자금 38억 원,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40억 원, 환경산단 경비 등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2백억 원에 가까운 고정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예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예산,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예산, 미래 성장 동력 예산 우선 편성 등의 원칙을 정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민소득과 직결된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831억원, 서민생활과 직결된 보건·복지분야에 5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였고, 읍면단위 축제와 각종 행사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담보하게 되는 30-30 프로젝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찬 정책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산재해 있는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열악한 재원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확보된 대규모 공모사업과 우리 강진의 미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30-30 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강진군민의 희망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마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FTA타결, 인구의 고령화, 수도권 경제 집중화,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의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험난한 파도 앞에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지방 자치단체는 좌초되기도 하고, 반대로 몇몇 자치단체는 어렵게 파도를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 공직자는 이 파도를 넘어 미래 희망의 대해를 힘차게 항해해야 되는 책무를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가 힘을 합한다면, 위기의 파도를 넘어 기회와 희망의 강진땅을 반드시 만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간다면 찬란한 내일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강진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온 열정과 신념을 바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한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4.
강진군수 **강 진 원**

2016

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23.(금) 10:0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비전과 전략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도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위대한 역량이 힘을 발휘해 우리 군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공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애민정신을 콘텐츠화한 다산 공직관 교육은 전국의 공직자들 사이에 '다산 배우기 열풍'을 불러오며, 강진이 명실상부한 공무원 교육의 1번지로 각광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천 8백 명에서 금년에는 두 배가 증가한 6천 여 명이 교육에 참가해 6억 원의 교육비 수입을 올렸으며,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 연간 9천 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단일 프로그램에 6천 여 명이 참가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군에서는 오는 12월 중순 경에 이전 부지가 결정되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먼저 전담 TF를 구성하고, 후보지 2곳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며, 우리 군으로 유치해야 하는 논리와 의지를 담은 사업 제안서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평가단의 현지 실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다산 선생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군으로 교육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5년을 강진 마케팅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진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창조적인 정책과 과학적인 전략을 펴 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블루오션의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제43회 강진청자축제 때는 강진 마케팅의 효과가 군 전역을 휩쓸며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축제 기간에 민간요의 청자 매출액은 파격적인 경품 이벤트와 30% 할인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해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으며, 체험료 수입도 97%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 초당림 물놀이장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숙박업소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며, 음식업소도 많게는 3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국도 23호선 구간의 교통량 조사에서 주말 교통량이 작년과 비교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 결과도, 강진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늘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이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실물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진만의 독창적인 자원과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연계한 마케팅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는 지역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발굴한 전략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하나 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강진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큰 생각으로, 숨겨진 우수한 자원을 발굴해 소득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진리지만,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는 오랜 준비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이륙에 성공했으며, 현재 순항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3무(無)와 3최(最)를 내세운 신뢰형 마케팅이 빛을 발해 18만 여 명이 다녀갔으며, 37개 부스에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놀토 수산시장은 '우리 군민들도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성공 사례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량은 회 값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인식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값도 싸고 맛있고 친절하다'는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농박과 차별화를 선언한 푸소(FU-SO) 체험은 미래 사회가 감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 적중한 사례입니다.

도시권에서 학생과 교사 등 25개 팀에 1,400여 명이 참여해 농가에 실소득을 안겨 주었으며, 감성여행 1번지 강진 관광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情)을 주고 마음을 얻는 감성 프로그램과 색다른 농어촌 체험이 대도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오감통은 음악 창작소를 기반으로 강진읍을 감성과 낭만이 흐르는 음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도전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쇠락하고 있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규모가 가장 큰 읍 권역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감통은 음악을 핵심으로 강진의 멋과 흥과 맛이 어우러진 융·복합형 공간으로서, 침체된 강진읍이 활력을 되찾고, 인근 상권에 선순환적인 소비를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도 개장한 지 6개월 만에 6만 8천 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농·수산물 유통에서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택배 직거래를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래 유통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유통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조직화·전문화해서 승부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이러한 전략으로, 유통의 생명과도 같은 3信(신뢰·신선·신속)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농이 상생하는 새로운 유통의 모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군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기에 추진과정에서 불편과 불이익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군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 이외에도 금년에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고 값진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 대형 SOC 사업이 가시화되고,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 신축이 완공되어, 우리 강진이 교통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 둘씩 갖춰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강진 구간이 포함되는 보성~목포 간 철도 건설은 이달 1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강진에서 광주까지는 30분대, 수도권 진입은 3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남 교통연수원은 다음 달 중순에 개원식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 5만 여 명의 교육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내년 초에는 국가 어항인 마량항의 인근에 제주항과의 화물 운송 시간을 인근 지역보다 왕복 1시간 이상 단축시켜 줄 신마항도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 군이 육·해상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서도 총 84건에 816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확보액 507억 원보다 61%가 증가한 금액으로 군정 역사상 역대 최고의 규모이며, 금년 본예산 2천 840억 원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순수 국비 100% 사업으로 17건에 521억 원을 확보한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강진군 공무원들은 국·도비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마르면 물을 찾게 되듯이, 국·도비에 목마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게 되고, 설령 탈락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여 기필코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진이 가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념으로 저와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유례없는 대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때 고속성장의 신화를 이뤘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급속한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를 대비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도의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직시하고, 2016년 새해에는 강진군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군정의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확실히 그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년대계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네 가지의 희망찬 프로젝트를 의원님들과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실소득을 높이는 현실경제 산업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마케팅 원년의 해로 강진의 모든 강점자원을 군민 소득과 연계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강진 마케팅의 해 2년차를 맞아 금년에 다져놓은 기틀 속에서 군민의 실소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모든 현실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성장의 시대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비용이 증가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공급이 넘쳐 소비 패턴이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블루오션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 분야는 벼 무논점파 농법을 금년 365ha에서 전체 벼 재배면적의 7%에 해당하는 700ha까지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들녘별로 공동 경영체를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육성하여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손 부족과 경영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양식업을 하시는 어민들에게도 가장 큰 애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 최초로 수하연 수평식 참굴 단지 6개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투석식보다 생산성을 두 배 이상 높이고, 노동력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해수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통해 크레인이 장착된 양식장 관리선 9척을 건조한 후, 어민들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 시범사업도 전국에서 최고 규모인 국·도비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 고급육 생산 기술 보급과 사료비 절감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강진의 한우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산업은 관광객 유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우선적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우도의 입장료를 유료화해서 군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수입 일부를 재투자 하겠습니다.

강진읍의 경제에 여름 특수를 안겨준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도 유료화하되, 군민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 외지 관광객과 군민의 입장료를 차별화하겠습니다.

, 세계 모란공원이 완공되면 영랑생가와 연계해 유료화하고, 석문공원과 다산초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향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 오감통통 시티투어의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박 2일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강진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정식과 회춘탕을 중심으로 하는 맛 산업과 연계하여 강진 쑥떡, 가우도 황가오리 특산 빵과 같은 지역 명물과 특화된 음식 판매로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청자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에 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가 개소한 청자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통해 도자기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자에 현대예술을 가미한 실용 청자의 생산·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다양한 감성여행 상품을 선보여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관광 산업의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관광 소득을 배가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 있는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우리 농민들은 벼농사를 대풍년이 들게 잘 짓고도 판로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어야 했습니다.

벼농사는 이처럼 작황에 변수가 많고, 소득이 낮은데다 쌀 소비량도 극감하고 있어, 미래에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진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의 무농약 생산단지를 점차 유기농 단지로 전환해 1,400ha까지 확대하겠으며, 고품질과 안전한 먹거리라는 강점을 마케팅 하여 판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벼농사보다 노동력은 적게 들면서 소득은 두세 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전략 품목으로 연과 작약, 모란, 토하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을 40ha까지 확대하고, 작약은 시범으로 생산단지 10ha를 조성하겠으며, 모란은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과 화훼산업을 연계해 6차 산업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토하는 서식지를 13ha에서 내년에 25ha까지 늘려 소득을 두 배 이상 올리고, 가공시설과 체험장을 조성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아열대 과일인 백향과와 키위 등을 시범 재배하고, 안데스 작물인 아마란스와 퀴노아 등을 소득 작목으로 보급하는 일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준공하는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통해 딸기, 단감 등의 과수를 공동 출하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산업을 이끌고 있는 착한한우 브랜드는 G마켓, 옥션, 쿠팡 등 대형 쇼핑몰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하여 축산물 직거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역대 최고의 수준인 69%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좋은 품질 등급을 받기 위해 수정란 이식과 육질 개선제 등을 적극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기능성이 높은 먹거리들은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강진에서 생산한 연, 여주, 쌀귀리, 해로달인 김 등의 웰빙 먹거리를 '강진 건강 10대 식품브랜드'로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사업인 투자유치와 강진읍을 노래 도시로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강진 산단은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의향을 밝힌 5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골프장과 성전면 월남 리조트 사업은 인수 의향을 밝힌 새로운 사업자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재개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독려하겠습니다.

노래 도시 조성은 내년에 3개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강진오감통의 음악창작소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과 음악 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7억 2천만 원을 확보한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강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진읍에 감성과 낭만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1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인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 조성사업'은 내년에 기필코 유치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노래 창작 기반과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진읍은 사의재, 영랑생가와 함께 세계 모란공원과 보은산 O2 공원, 강진만 갈대숲에 이르는 관광 명소를 갖추고, 음악 예술과 농·수·축산물 먹거리가 어우러져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사업으로, 강진만의 우수한 자원을 발굴해 소득으로 연계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의 보고인 탐진강에서 강진만까지 종합발전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탐진강은 국가 하천 중에서 최대 규모인 1천 131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비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익산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목리교에서 군동 구간의 제방 둑 정비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의 4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탐진강·강진만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 강진만을 순천만을 뛰어 넘는 생태 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강진만 갈대 프로젝트'와 '탐진강 1131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 내년에 갈대숲 탐방 데크와 노을 포토존, 주차장 등을 확충하고, 2017년에 생태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만의 갈대숲과 노을, 팜파티와 음악여행 등을 콘텐츠로 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내년에 가을 축제로 시범 추진하고, 다음 해에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강진의 가을을 전국에 마케팅 하겠습니다.

, 강진의 소금강으로 이름난 석문계곡 일대도 산악 레저 및 힐링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석문산 정상부에 111m 길이의 사랑+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석문공원과 주작산 휴양림, 덕룡산 일대의 진달래 군락지를 연계하여 도암면과 신전면을 아우르는 명품 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백련사와 옥련사, 다산초당 일대까지 관광 벨트로 구축하여 연 20만 명의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건강 문제도 새롭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의 재정과 행정의 힘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장과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하는 복지 이장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 단위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등 보금자리를 개보수해 드리고, 노인 일자리를 800명에서 내년에 9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정을 채워 드리기 위해 도시의 자녀가 부모를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녀가 되어 드리는 따뜻한 감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해 여성 친화 도시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 인구 비율은 52%로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와 경제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적인 역량을 함양하며, 행복을 충전하는 다양한 여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우리 군의 소속 팀인 사이클 선수를 십분 활용하여 ‘두 바퀴로 달리는 군민 힐링 여행’을 추진하고, ‘세시네시 짬짬이 운동’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을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와 ‘강진 미(美)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와 자긍심을 함양하여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강진의 꿈을 실현할 사람중심 정책과 예산 효율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 중심의 휴먼웨어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최대의 자원이자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강진의 백년대계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전문적인 역량과 마인드를 키운 군민들이 농·수·축산업은 물론 음식산업, 서비스업, 마케팅까지 여러 분야에서 성공의 주역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강진의 경쟁력과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8개 대학에 11개 과정을 개설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를 각 분야의 전문 경영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맞춤형 기술교육과 선진지 현장견학을 지원하고,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산업 창업 지원센터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6차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청년 농업인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 사관학교를 내년에 귀어민들까지 확대하여 도시민들이 강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무원을 최고의 실력자로 키우기 위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강진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내부 역량과 지역의 가치를 키워줄 사회적 자본 함양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강진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고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해서 화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큰 생각으로 화합하고 협력할 때, 강진의 행복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선생의 애민사상과 병영상인의 도전정신, 사의재 주모의 열린 마음 등 우리 지역의 좋은 사회적 자본들이 군민의 정신과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내부 역량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군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의 복지비 산정 비율이 상향되어 도시보다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은 내년에 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인 우리 군도 내년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철저한 긴축 재정을 운용해야만 하며,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종 보조금은 철저한 사전 심사와 평가를 통해 실적이 높은 사업에 지원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점차 축소하겠으며, 투자한 사업은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천 86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0.8%에 해당하는 2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2천 8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1%가 감소한 64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0.8% 증가에 그친 이유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철저한 긴축재정에 기조를 두고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는 동결 내지는 절감했으며, SOC사업 등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군민의 실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으며, 군의 역점사업인 4대 핵심 및 3030 프로젝트 예산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림·축·수산업 분야는 29.6%에 해당하는 829억 원, 보건·복지 분야는 20.7%에 해당하는 5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0.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국적인 장기 불황으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군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법적인 의무경비가 상당하여 내년에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이 다른 시군과 다르게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은 아트홀 상환금과 운영비 40억 원, 강진 산단 입주 보상금 4억 원, 환경산업진흥원 운영비 3억 원, 벼 경영 안전자금 38억 원, 스포츠대회 유치 30억 원, 유류세 유가 보조금 20억 원으로 총 1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의무경비가 524억 원,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액이 345억 원에 달하여, 예산 규모를 0.8% 늘렸지만 사실상 군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많이 도와 주셨지만, 내년에도 희망찬 정책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식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군이 대형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창조의 길을 개척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사랑하는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열정을 다하다보면 방법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군민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지혜를 짜 모아 주셨고, 동참해 주셨으며, 인내하면서 역량도 결집해 주셨습니다.

그 결집된 역량과 긍정 에너지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앞에는 더 힘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력 있는 위대한 군민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전략도 있습니다. 그동안 달성한 많은 성과와 성공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군민 모두가 제 자리에서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다면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강진 시대를 이뤄냅시다.

그 선봉에 군수인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3.

강진군수 **진 원**

2017

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3.(수) 10:0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비전과 전략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인 장기 불황과 유례없는 폭염, 쌀 값 폭락 등으로 우리 군민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에 강한 우리 군민들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여 올해 큰 성과들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강진은 어느 시군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으며, '강진이 하면 성공한다!' 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위대한 역량, 그리고 공직자들의 열정이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소득을 높여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냈습니다.

군정 4대 핵심 프로젝트는 출범한 지 1년 만에 강진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푸소(FU-SO)체험과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군민의 실제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푸소체험은 이달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4천945명, 다산청렴교육생 1천416명 등 모두 6천887명이 다녀가 120농가에 농어업 외 소득을 안겨 주었습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261농가에서 150여 개 품목을 판매하여 고객 12만2천명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체 40억 원을 돌파하여 도.농이 상생하는 택배 직거래의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 프로젝트별로 개선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진의 미래 백년을 밝혀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난 3, 4년간 새로 개발한 관광지도 올해 모두 완공해 이미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강진읍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지가 더해지면서 '강진 관광지도가 놀랍게 바뀌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인해 주변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관광객을 분산 유치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우도에 청자타워와 해상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짚트랙이 개장하여 주말 평균 1만4천 여 명이 찾고 있으며, 마량과 도암 방면에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가우도는 청자타워와 짚트랙 가동으로 연 100만 명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서도 올해 특별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군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도비 확보 예산이 1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국도비는 총 99건에 1,189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67억 원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큰 SOC사업과 농림, 해양, 문화관광 분야 등은 대부분이 100% 국비 사업이어서 어려운 군 재정형편을 생각해보면 눈물겹도록 값진 성과입니다.

굵직한 사업으로 마량항 정비사업에 235억 원, 강진읍 동성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에 200억 원, 강진천 고향의 강 정비에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천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비 42억 원을 포함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처럼 눈부신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정말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어려움과 고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력 있는 우리 군민들은 결국 해내셨습니다.

지난 3, 4년간 군민과 함께 밤낮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고, 사즉생의 각오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올해 거의 모두 완성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한 자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자신감과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군 성과들을 총 결집하여 힘차게 날아오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군민의 실제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공전략으로 여섯 가지의 희망찬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의원님들과 공직자, 군민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사업을 우리 군민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제44회 군민의 날에 내년,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기획하게 된 것은 장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내도 수출과 내수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치와 안보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불안감에 지갑을 열지 않아 내수 침체는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부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황을 체감하는 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성공 확신을 가지고 꺼내든 전략사업이 바로 '강진 방문의 해' 입니다.

때마침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와 3030 현안과제를 통해 새로 개발한 관광지가 올해 전부 완공되기 때문에 인프라는 100%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은 강진에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많은 해라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2017년은 강진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600주년, 전라병영성이 축성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강진 방문의 해를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성.문화 마케팅**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주력산업이자 주 소득원은 농업입니다.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 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군 전체 예산의 30% 상당을 농수축산인과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마케팅을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강진이 감성여행 1번지라는 강점을 활용해 농업에도 문화.감성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농가에 와서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는 감성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 구입해 가서 입소문을 내게 함으로써 재구입을 유도하자는 전략입니다.

입소문을 듣고 또 다른 구매자가 생기면 농가의 소득은 자연히 올라가고, 고객 네트워크도 확장될 것입니다.

이 마케팅은 감성여행 대표 상품인 푸소(FU-SO)체험에 이미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방문의 해에 강진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으로, 군민의 친절.청결.신뢰 자본 함양과 실질적인 참여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진 방문의 해 민.관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인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민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행정에서는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성공 여부는 우리 군민에 달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저력은 지난해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 유치와 4대 핵심 프로젝트 성공, 올해 전남도의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유치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성공 관건인 두 가지를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게 관광객을 맞이하느냐'와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내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참여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장, 상가 등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스마일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까지 확대하여 친절 마인드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잘하는 업소와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모니터링과 피드백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 박람회를 치르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강진 방문의 해라는 큰 행사를 통해 군민의식이 크게 성숙해지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마지막 전략으로, 무리한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경비 투입으로 최대의 시너지**를 내는 실속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강진 방문의 해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 행정력을 집중 동원해야 하는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기반 조성에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자원화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음악, 체험, 먹거리 등의 감성 콘텐츠와 건강 농식품 10대 브랜드, 우수한 농수축산물 팔거리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전국에 알리고, 보여주고, 마케팅해서 소득으로 연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경기 불황을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힘으로 강진 방문의 해를 꼭 성공합시다.

둘째,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농업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쌀 값 폭락으로 우리 군민의 주요 소득산업인 쌀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에서는 쌀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미리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다수에게 혜택을 드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농림축수산업 분야 지원 사업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많이 써 왔습니다.

이 전략은 농어업을 특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합법적인 경우라도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수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와 소수 농가, 여성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고품질 품종 장려금을 호평벼는 160ha까지 늘리고, 처음으로 지원하는 일미벼는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1,000ha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면적을 17ha에서 30ha까지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작목인 연 재배 면적도 올해 18ha에서 내년에 더 확대하여 참여 농가 수를 늘리겠습니다.

관내 영세 농가와 고령 농가, 귀농인, 여성 농업인을 위해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수 농업인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서,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 와서 배우고 갔으며, 이후 도 특수시책으로 도입하여 시군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 공동급식 부식비를 1인당 2천 원에서 2천5백 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농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에서는 내년에 패류 중간 종패대를 꼬막과 바지락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리맛에 대해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어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장비로 부잔교와 인양기확대 지원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전남도에서 추경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긴밀히 협의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죽도 인근 갯벌에서 올해 처음 선보인 쏙 잡기 체험행사는 내년에 봄.가을 2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죽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인근 가우도의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어촌관광 6차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업시설로 문어와 낙지, 전복 보관 저장시설도 지원하여 어민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축산업 분야는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액지원과 우수한 혈통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영세한 부업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육질개선제를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3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도내 최초로 소규모 농가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군에서만 특수하게 지원하고 있는 암소 우수개체 육성,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익을 창출하는 돈 버는 행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돈 버는 행정으로 군민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장한 가고싶은 섬 가우도의 청자타워가 대표적인 수익형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31개 전망대 대다수가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조적으로 청자타워는 레저시설로 짚트랙이라는 획기적인 콘텐츠와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해 완벽한 수익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무료 체험객을 포함해 6천7백 명이 이용하여 9천6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군 재정과 인력 부담이 전혀 없는 민간위탁을 통해 매년 1억 원의 사용료를 선납 받고, 추가 수익금은 균등 배분하므로 실제 경제 이익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짚트랙 이용료 2만5천 원 중 5천 원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상품권 소비를 위해 관내 상가를 이용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가는 선순환을 통해 군 전역에서 직접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실소득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강진사랑 상품권 이용을 군정의 전 분야에 확대하겠습니다.

군의 각종 포상금과 행사경비, 지원금 등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겠으며, 관내 기관.단체와 군민들도 상품권을 적극 이용하도록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랑생가, 보은산 V랜드, 석문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주차료를 받는 대신 강진사랑 상품권을 되돌려 주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상황에 따라 돈을 풀 수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신, 강진군의 화폐인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유통시켜 지역에 자본이 흐르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오토캠핑장과 분홍나루, 마량 해상 북카페와 같은 군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세수를 올리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아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강진읍을 핵심축으로 강진만 둘레를 벨트화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강진읍이 잇따른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활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새로운 희망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쇠락하고 있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규모가 가장 큰 읍 권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진읍을 핵심 축으로, 강진만 둘레를 따라 동서남북 권역을 벨트화하여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춘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읍 중심권역은 오감통과 전통시장,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를 연계해 강진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겠습니다.

최근에 오감통 인근 강진읍 시장이 전남도가 공모한 문화.예술 융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6억6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읍 시장과 오감통 일대를 음악산업과 인근 관광지, 먹거리촌을 연계한 문화.예술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강진읍 동부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내년에 더 박차를 가해서 강진읍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다산청렴수련원은 사의재,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등과 묶어 다산 선생의 청렴과 애민사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산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보은산 O2 공원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키우겠습니다.

강진읍 북부와 남부권역은 탐진강부터 강진만을 거쳐 마량.신전 바다에 이르기까지 둘레길을 쭉 연결하고 구간구간 올레길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조성한 가우도 짚트랙과 강진만의 자전거도로, 올해 착공에 성공한 강진골프장과 계획 중인 수상 레저 관광자원 등도 효율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껴 두었던 보석과도 같은 자원입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오감통 3일간의 음악여행은 읍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씀과 함께 365일 찾고 싶은 명소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보존과 개발을 통해 3년 안에 순천만을 뛰어넘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는 강진만' 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확고히 인식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정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총 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47위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어림잡아 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슴 깊이 불만이 쌓여 있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처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살피고, 노인과 여성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다수의 군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군정 최초로 경로당 300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냉방기가 없는 경로당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에 걸맞게 새해에는 모든 군정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6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과 여성 근로자, 결혼 이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명실상부한 여성 친화도시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다문화,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도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연구하고 배려하여 만족도가 높은 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이 복지 허브화가 되어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읍면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과 복지 이장, 복지업무 공무원이 함께 협력하여 체감지수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강진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 있고 감성소통하는 휴먼파워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강진군의 최고의 자원이자 최대 자산은 군민입니다.
저는 군수에 취임한 이후 군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투자야말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값진 투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효과는 바로 즉시 나타나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우리 군민들의 실력과 마인드가 부쩍 높아졌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군민들께서 맹활약하고 계신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새해에도 군민의 실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이 강진의 경쟁력이 되고, 군민이 강진의 꿈을 실현하는 휴먼파워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은 7개 대학에 9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과 직능단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감성을 채워 공감 소통하는 열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와 강진 미(美)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성과 감성을 채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통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SNS 대화방을 활성화하여 군민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희망찬 과제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군 살림살이 규모는 3천 115억 원으로, 군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3천 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의 8.7%에 해당하는 250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8.2%가 증가한 3천 30억 원, 특별회계는 32.5%가 증가한 85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증가액이 미미하여 7.0%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내국세의 정산분이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편성하여 본예산에 내년 사업을 모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예년에 없던 새로운 시책 예산이 반영되어 규모가 늘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군도 내년부터는 채무가 전혀 없는 지자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정비용은 아트홀 상환금과 운영비 56억 원, 벼 경영안정자금 38억 원에 강진산단 경비와 유류세 유가보조금까지 총 2백억 원에 달해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을 기점으로 유류세 유가보조금 20억 원의 추가 편성이 마무리되고, 지방채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한 23억 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 국비사업과 지원율이 높은 공모사업을 대거 유치함에 따라 2013년에 35.8%이던 군비 부담률이 내년에는 27.6%로 대폭 낮아져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954억 원,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6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 휴먼파워, 즉 군민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예산과 영세 농가를 비롯해 소외되는 군민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강진 방문의 해와 희망찬 정책 과제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순학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진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관내 기관.사회단체마다 과제를 정해 실천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열정을 다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군민 모두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갈대축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우리 군민의 힘으로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멋지게 성공시키길 기대합니다.

군수인 저와 800여 공직자도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3.

강진군수 강 진 원